

간디IN

2018 봄



더불어 행복한 사람

gandhischool.org



숨은그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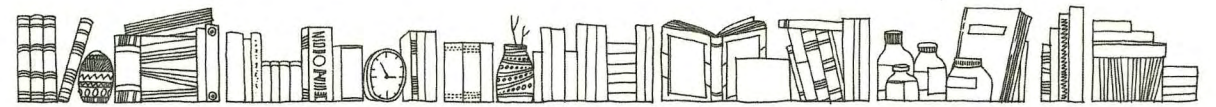
김재하

2018 간디인 봄호에서
김재하 4명을 찾아주세요.
기자들을 찾아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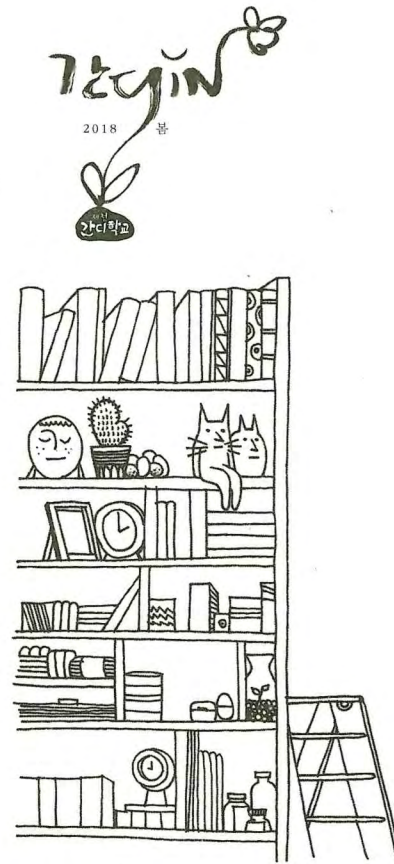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정상이 사이좋게 분계선을 넘어 남북을 오가는 모습은, 우리도 곧 그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했는데요. 멀고도 가까운 우리, 가까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최유경 편집장(5학년)



차례

- 간디인 갤러리 숨은그림 찾기 :: 김재하(4학년)
- 02 여는 글 '변화를' 여는 글 :: 최유경 편집장(5학년)
- 05 특집 한반도기 휘날리며
우리, 북한은 언제 간디? :: 이재형(5학년), 박우제(4학년) 기자
생태 화장실이나? 기숙사 화장실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 권윤서 기자(3학년)
관상을 누가 보냐구? 자네 아직도 날 모르나?
- 25 개 요즘 잘 지낸대 스물 한 살의 완벽했던 여름 :: 김채현(졸업생)
- 29 반가워요, 후원인 화석 발견!? :: 김서준 기자(2학년)
- 32 사실 걷기 힘든 게 아니라 :: 이한결 기자(5학년)
- 37 화제의 인물 우리는 간디/ 걸~이예요 :: 이성민 기자 (3학년)
- 45 간썰소
- 46 아, 제 점수는요 꿈을 통해 생각을 심을 수 있다면 :: 이태훈(4학년)
이 영화는 사랑입니다 :: 오우진(4학년)
- 48 스케줄러
- 52 기자 후기



그림·미스터 김

‘변화를’ 여는 글

최유경 편집장(5학년)

일상다반사 모집 공고에 이름을 적어 넣었던 1학년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편집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는 글이라는 중대한 지면을 맡게 되었네요. 술한 편집장들 밑에서 글을 썼지만, 노상 여는 글은 주제도 없고 취재도 안 하는데 뭐가 어렵냐며 투덜대던 과거의 저를 데려다 놓고 싶습니다. 왜 그 때는 몰랐을까요, 주제가 없는 글이 제일 어려울걸요. 새하얀 지면 앞에 눈 앞이 캄캄하지만, 심호흡 조금 하고 학교 얘기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겨울이 지나고, 덕산엔 조금 늦은 봄꽃이 흐드러졌습니다. 눈이 녹고 봄꽃이 피우기까지 학생들이 떠난 학교는 요란한 소음과 먼지투성이, 낯선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작년부터 설제도까지 마련하며 예정되었던, 학교 시설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대공사는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입을 떡 벌릴 만큼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장 세달 간의 공사를 마

친 새로운 공간들엔 새로운 멘토반, 학급들과 병아리마냥 재잘대는 신입생들. 개학을 맞아 활기를 되찾은 학교에는 학생들이 모여앉아 오순도순 떠드는 정경이 펼쳐집니다.

변한 것은 비단 공간만이 아닙니다. 작년 내내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까지 학교의 삼주체가 모여 부단히 노력한 ‘교육과정 개편’이 드디어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존 교육 체제는 1-3학년

학년반, 4-5학년이 섞여 들어간 멘토 반, 6학년 학년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개편을 거쳐 1-4학년이 섞여 들어간 멘토 반, 5-6학년 학년 반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벌써부터 8개의 멘토반들은 각 반의 특색을 살려 반 이름도 짓고, 봄이 떠나기 전 서둘러 꽃놀이도 다녀옵니다. 올해의 신입생 친구들은 같은 멘토반에 속한 선배들의 도움으로 보다 수월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해갈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해리 포터>의 네 기숙사처럼 말이죠.

변하지 않는 광경도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개학이 두 주나 미뤄진 탓에 입교하자마자 기획 회의부터 가열찬 취재에, 부랴부랴 마감까지 해야 한 일상다반사입니다. 방학에도 연중무휴! 일상다반사는 기나 긴 겨울 연수를 거쳐 이번 간디in은 특집/비특집의 포맷으로 진행됩니다. 그 중 특집은 하나의 큰 주제를 관통하는 여러 기사들로 꾸러지며, 야심차게 시작한 첫 특집의 주제는 ‘정상회담’인데요. 얼마 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모티브를 얻어왔는데, 막연한 주제 같아 걱정하던 편집장을 비롯듯 기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빛났습니다. 박우제 기사는 요즘 학교에서 진행되는 통일 수업을, 이재형 기사는 무려 광화문에서 열렸던 평화 통일 집회에 직접 다녀와 그 뜨거운 현장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권윤서 기사는 세계 제일 쓸데없는 주제로 ‘정상회담급’ 대화를 하는 친구들을 고스란히 담았으니 첫 특집이 참 알차게 꾸며졌죠? 김담 사진기자가 선보이는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정상들의 생생한

모습까지 놓치지 마세요!

물론 일상다반사의 오리지널 꼭지들은 계속됩니다. 김서준 기사는 2년차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아, 제 점수는요>와 <반가워요 후원인>, <개 요즘 잘 지낸대?>까지 무려 세 개의 꼭지와 분투했지만 결국 마감을 지켜주었고, 정작 이한결 기사는 편집장 감투를 내려놓자마자 마감을 늦는 해이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도 괜히 5년 차는 아닌지 본교의 4.19 마라톤 행사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다루어주었네요. 이성민 기사는 <화제의 인물>을 맡아 마감 5일 전에 화보와 기사 모두를 완성하는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문형 사진기자가 콘티까지 짜가며 심혈을 기울인 제천간디의 신인 걸그룹! 간디걸즈의 고퀄리티 화보들을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간디in의 감초라고 할 수 있는 스케줄러는 김재하 삽화기자가 여는 때처럼 잘 그려주었습니다. 다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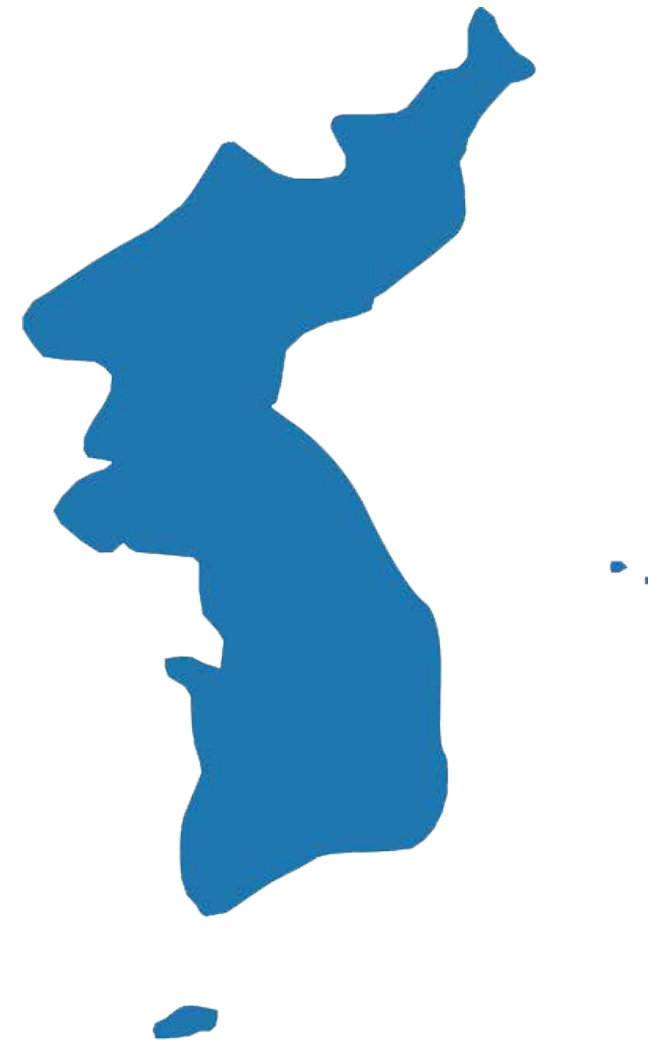
한반도기 휘날리며

- 1. 우리, 북한은 언제 간디? - 이재형(5학년), 박우제(4학년) 기자
- 2. 윤서 비정상회담
- 3. 화보, 인식, 관상

습은 이스라엘에 두고 왔는지 처음으로 마감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래도 그림 솜씨만큼은 여전하니 알차게 채워진 스케줄러를 꼭 확인해주세요.

학교에도 신입생 친구들이 들어왔듯이, 일상다반사에도 신입기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조예나, 조연지, 윤수민 글기자와 최현서 사진기자, 이담 삽화기자까지! 여느 때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게 된 만큼 다음 호에는 보다 풋풋한 기사와 그림, 사진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봄호가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항상 희의를 늦고, 항상 마감에 늦지만 이번 한 호를 결국 잘 만들어낸 모든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물론 박수가 아니더라도 간디in을 사려깊이 봐 주시는 모든 분들이 기자들에겐 큰 보상이 되겠죠? ✨





우리, 북한은 언제 간디?

이재형(5학년), 박우제(4학년) 기자

아닛!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동반입장부터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통일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간디학교가 빠질 수 없죠. 최근 학교 안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통일 수업과 통일 소모임을 만들고 3.24 평화시위까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들, 안 만나 볼래야 안 만날 수가 없겠죠? 먼저, 통일 수업 현장으로 박우제 기자가 갑니다~

통일? 그거 왜 해야 하나?

박우제(4학년) 기자

봄이 오고 한결 따듯해진 학교. 옛날 옛적 서당에서 하늘 天 땅 地를 외치 듯 한국현대사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통일 수업입니다. 통일이 목적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월요일 2교시, 시끌시끌한 과학실로 들어갔고, 여

기에는 평화 통일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3학년 황석연, 4학년 한강, 임다운, 서명주, 이봄, 5학년 이창범) 『20세기 우리 역사』라는 책으로 한국 현대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조금 늦은 기자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강: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국내에 처음 전해진 것은 그해 12월 27일이었습니다. 28자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은 카이로선언에 따라

조선을 즉시 독립시키고, 그 정부형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한 데 반해 소련은 남북 두 지역을 통틀어서 한 나라가 신탁 통치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범: 하지만 신탁통치를 하자고 먼저 주장한 쪽은 미국이었고, 신탁통치 기간을 길게 잡은 쪽도 미국이었지요. 그런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국내에 처음 전달한 신문은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소련이 주장하고 미국이 반대한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남북 전체를 통치할 임시정부를 수립하면 민족분단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선이 없어진다는 점은 뒷전으로 밀고, 5년간이나 연합국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만이 일반 국민들에게 부각시킨 ‘오보’를 낸 것입니다.

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첫째 한반도에 남북을 통일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38도선과 미 소 양군의 분할점령 상태를 해소하고, 둘째 수립되는 남북통일 임시정부가 미 영 중 소 등 연합국의 감독과 원조 내지 후견을 받으면서 5년간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고, 셋째 신탁통치 5년 후 이 임시정부 관리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줌으로써, 한반도에 완전한 독립국가를 수립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연: 그런데 이 ‘오보’ 때문에 3상회의 결정이 전해지자마자, 미 소 양군의 분할점령을 극복하고 남북 전체를 포괄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38선을 철폐하는 문제보다, 즉시 독립이 아니고 5년간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하는 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강조되어, 반탁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다운: 신탁통치 반대 분위기에 부딪힌 미군정의 하지 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민주당, 국민당, 공산당, 인민당 등 좌우의 정당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신탁통치가 원조와 협력을 의미하며, 38도선을 철폐하고 남북통일정부를 세우는 최선의 방법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탁통치 기간에도 통치권은 조선임시정부가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신탁통치라는 용어 대신 원조, 지원, 자문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명주: 미군정 쪽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에서 돌아온 김구 세력 중심 임시정부 쪽의 반대운동은 강력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정에게 중국에서 돌아온 임시정부를 즉시 승인하라고 요구했고 이때 반탁은 애국이며 즉시 독립의 길이고, 찬탁은 매국이며 식민화라는 등식이 성립되어갔습니다.

은정쌤: 38도선도 없애고 신탁통치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38도선을 없애기 위해 5년간 신탁통치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5년간의 신탁통치를 안 받으려다가 38도선이 그대로 민족분단선이 되게 할 것인가 등 몇 가지의 엄중한 선택이 이 시기 우리 민족사회 앞에 놓였었다고 할 수 있지요.

수업에서 자신을 소개한다면?

창범: 노력파 학생.

한강: 똑똑한 학생.

이봄: 천재 짱짱 똑똑한 평화통일 수업의 지주.



명주: 열정 수강생.

다음: 소원이 통일인 학생.

석연: 훌륭한 학생.

통일 수업을 왜 들었어?

창범: 소모임에 들어갔는데 수업 들으라고 해서 그리고 소모임 활동에 도움 될 것 같아서.

한강: 통통통¹이기도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았음.

이봄: 우리에게 역사를 배우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명주: 통통통 소모임이면 들어야 된다고 해서가 크지만 통일에 관심이 많아서 들었음.

다음: 통일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서 채우고 싶었음.

석연: 소모임이면 들어야 된다고 했음.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창범: 북한 친구랑 농구하고 게임하고 문화교류.

한강: 군대 안 가기.

이봄: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유럽가기

명주: 평양가서 냉면먹기, 북한 친구와 친해지기

다음: 백두산 오르기, 북한 동무 사귀기, 북한 여행

석연: 평양이나 금강산을 가고 싶다.

나에게 통일 수업은?

창범: 은정쌤 사랑해요♡ 철수쌤도

한강: 통통통의 연장선.

이봄: 역사 지식을 늘리는 수업.

명주: 아 몰라몰라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다음: 통일을 위한 한 걸음.

석연: 그냥 월요일 2교시에 있는 수업 지식은 많이 쌓이는 수업.

우리나라는 왜 통일이 되어야 해?

창범: 서로 무시하고 살지 않는 이상 전쟁은 계속 된다. 종전을 해서 함께 살아야 전쟁에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강: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어야 전쟁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전쟁은 무서우니깐, 우리나라 국방비도 줄일 수 있고 또 미국의 간섭도 벗어날 수 있고 일석이조.

이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명주: 그 문제는 아주 이유가 많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내가 모르는건 절대 아니다.)

다음: 우리나라에 기술력과 북한에 노동력을 합치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애초에 한 나라인데 분단된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석연: 어차피 같은 민족인데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깐

평화 통일 수업의 최종 목표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각자의 답을 찾고 주변에 답을 전파시켜주고 결국엔 통일까지 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통일 수업을 취재한 박우제 기자였습니다.

??: 근데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통일로 튀어가는 통일 소모임 '통통통'을 이재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통일! 통통통 트로피카나~
통일! 통통통 트로피카나!

통통통 튀는 통일 소모임 '통통통'의 이름은 통일 통일 통일!을 줄인 거라고 해요. 통일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고 함께 땅굴을 판다는데... 흠, 이들이 통일로 가기 위해 어떤 일을 꾸밀지 참 궁금한걸요?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고? 거기다 북미 회담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고 통일로 가는 문이 조금 열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미 군사연합 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이 그 문을 다시 닫으려고 했죠. 성주에 사드배치도 계속 강행되고 있었구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통통통 부원들을 포함한 간디학교 학생 10명이 “3.24 평화촛불 집회”에 참여해 우리가 원하는 ‘대화’와 ‘평화’를 외치기 위해서 덕산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헉..헉.. 이재형 기자도 함께 갔습니다.

12:00 광화문 가는 길, 통일로 가는 길

지금은 토요일 점심, 통통통 서울로 튀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스타렉스에 친구들이 짹짹 차서 많이 비좁은데요. 다들 들뜬 표정으로 잠을 자고 있군요! 가는 길에 통통통 소모임 대장 이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먼저 통통통이 생기게 된 배경, 계기는 무엇인가요?

봄 : 철수쌤이 은정쌤한테 자네 통일에 관한 수업

1. 교내 통일 소모임의 이름



통일소모임의 철수뺨(왼쪽)과 은정뺨(오른쪽)

을 해보지 않겠나? 그래서 은정뺨이 석연이를 꺾고 다은이 꺾이고 그렇게 통일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기자 : 아하! 그러면 통통통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봄 : 일단 소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통일수업을 들어요. 또 평화통일 집회도 가고 통일 국기도 만들고 이름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통일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자 : 집회에 가는 길, 기분은 어때요?

봄 : 인생에 몇 번 못 해볼 거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플래시몹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엄청 떨리고 내가 가서 해도 되는 자린가? 이런 생각도 하고 (**기자 :** 플래시몹을 하나요?!) 흠... 이건 비밀인데...

기자 : 으하하. 다른 친구들은 어떤가요?

봄 : 쿵쿨...

15:00 벗들이 있기에~

기자 : 드디어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근데 저기 모여 있는 청소년들은 다 누구인가요?

봄 : 모두 우리와 같이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대안학교 학생들이에요! 교육공동체 '숲나와 산마을 고등학교 통일동아리 '홀씨', '산청간디학교' 사람들과 우리까지 서로 만나서 교류활동을 하게 됐어요.

처음 만나지만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자기소개도 하고 조진태² 게임과 당당사³ 게임도 같이 했습니다. 짧았지만 함께했던 시간 다들 어땠을까요?



주현 : 나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 그동안 다른 학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교류를 해도 친분을 목적으로 했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문제의식과 이뤄 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공동체모임을 한 것도 좋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한 게 아쉬워.

히늘 : 통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어, 반갑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임이 뭐지? 그거는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낯설고 어색하긴 했는데 당당사는 몇 번 해봐서 재밌었어.

다은 : 다른 학교 학생들도 통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 거잖아. 그 친구들과 나중에 또 만나서 친해지고 통일이랑 우리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산마을 고등학교 '홀씨' 학생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홀씨 학생 A : 교류회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다

-
2.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손병호 게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조개 · 진주 · 태풍 게임'을 줄인 거랍니다. 조개를 외치면 조개가, 진주를 외치면 진주가, 태풍을 외치면 전부가 자리를 바꿔가야 하는 게임이에요.
 3. 스스로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려요!



른 학교 친구들이랑 말도 잘 못하고 친해지지도 못 해서 아쉬워요... 다음에는 서로 학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도 못해 볼 경험 한 것 같아서 의미 있었어요.

출씨 학생 B : 교류회를 처음해서 그런지 준비된 부분도 많이 없었고 하다보니까 진행도 잘 안되고 서로 소통하다기 보다는 게임만 하다가 끝나버린 것 같아서 아쉬워요. 다음에는 더 많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 저도 아쉬움이 남네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소개도 하고 게임도 하니 들뜨던걸요? 좀 가까워진 것도 같고... 사실 어색해서 말도 한 번 못 붙였어요. 또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17:00 우리 플래시몹 합니다!

♫사랑해요 그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웃어요.♫

노래가 나오자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함께 플래시몹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춤을 추는 걸 보고 있으니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아 아까 대장 이봄이 말한 비밀이 이거였군요! 학교에서 며칠 전부터 연습했다고 해요. 저도 옆에서 같이 했는데 이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다들 어땠나요?

주현 : 우리학교 사람들끼리 할 때는 별 감흥이 없



었는데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굉장히 그림도 예뻐 보이고 다른 대안학교 사람들과 우리학교 사람들이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어!

석연 : 나는 좀 창피하긴 했는데 하다보니까 나쁘지 않았어.

봄 :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 진짜 재밌었어.

연지 : 처음에 반주 나올 때 다들 박수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만 춤을 춰서 민망했어.ㅋㅋ

18:00 3.24 평화촛불 본 행사 시작

6시가 되고 본 행사가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풍물을 치며 시작을 알렸는데요. 사드가 세워지고 있는 성주에서 오신 할머니들의 합창 공연과 김천 울동맘, 천사들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와 평화를 외치고 무대 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추운 날에도 뜨거운 집회가 계속됐는데 보면서 어땠나요?

석연 : 백기완⁴ 선생님 연설이 되게 기억에 남았

4. 시민사회운동가, 통일운동가로 현재는 통일문제연구소에 소장으로 계신다고 합니다. 이 날,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하셨습니다.



어. 연로하신데도 되게 열심히 이신 것 같아서 되게 필사적이시고.

주현 : 맞아 맞아 정말 약간 몸도 파르르 떠시면서 우리한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딱딱 내리박아주신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

다은 : 저는요 사드 배치 지역 할머니들이 합창하던 게 기억에 남았고 한 할머니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할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 아픈 얘기들이 더 공감이 됐어요.

연지 : 저기 멀리 어떤 데에서 얘기들이랑 엄마들이랑 와서 춤췄는데 얘기들이 귀여웠어.

저도 집회를 통해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주 할머니들과 김천 울동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 평화를 위해 이렇게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도 많아집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덜덜

20:30 다시 학교로

이후 시작했던 행진에도 함께 하고 싶었지만 돌아갈 길이 먼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이만 떠납니다. 다들 뜻 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집회를 다녀온 소감이 어떤가요?... 아, 스타렉스 안은 이미 고요하군요. 저도 많이 피곤하네요. 마지막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24 평화촛불 집회에 참여한 간디인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하나의 촛불들이 모여 통일까지 이뤄내면 참 좋겠습니다. 통통통이 앞으로도 많은 활동 이어가길 바라요. 다른 학생들도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고 간디학교도 한번도 평화로웠으면 좋겠네요. 피이쓰! 지금까지 서울 갔다 온 이재형 기자였습니다.

(며칠 뒤)

기자 : 저기... 늦었지만 통일 집회 갔다 온 소감 얘기해주세요.

주현 : 사실은 나는 정말 관심이 없었던 말이야. 지금 회담을 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집회를 갔다 오니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것 같아. 또, 우리 학교 내에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서 간 거잖아. 우리학교 학생들이 목적의식과 문제의식이 있어서 같이 갔다는 게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해. 같이 했다는 게 뿌듯했고 앞으로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도 하면서 집회도 가고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

다은 : 촛불로 박근혜 씨가 물러났잖아요? 그것처럼 제 2의 촛불을 들어서 통일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서울에서 만난 대안학교 애들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슬픈 과거가 많잖아요. 더 알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소원은 통일이예요.



석연 : 간 게 후회되지 않는다. 좋았고 그런 집회 같은 게 있으면 또 갈 의지가 있다.

연지 : 너무 배고프고 춥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랬지만 집회 끝에 영상을 보며 감동받았고 플래시몹 재밌었어.

봄 :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



생태 화장실이나? 기숙사 화장실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권윤서 기자(3학년)

간디토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은 김간디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학교의 트레이드 마크! 자연을 사랑하는 생태 화장실과 생태와는 다르게 파리 한 마리 없는 기숙사 화장실을 주제로 얘기합니다. 생태화장실과 기숙사화장실 중 학생들은 어떤 화장실을 더 사랑할까요? 치열한 토론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양측 대표 인사해주세요.

명익 : 안녕하세요 저는 명익이고 생태화장실(이하 생태)¹ 파입니다.

우진 : 정우진이고 기숙사 화장실을 사랑합니다.

1Round start

명익 : 일단 생태화장실은 겁나 생태적이야.

우진 : 더럽고.

명익 : 남자기숙사 화장실이 더 더럽다던데? 아무리 좋아도 생태의 장점은 못 이겨. 생태는 똥소리가 안

들려.

우진 : 아니야. 기숙사 화장실이 훨씬 쾌적하고 좋아. 최신식!

명익 :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최신식을 좋아하면서 점점 모두가 병에 걸리고...

우진 : 좋은 화장실을 쓴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

명익 : 청소 할 때 락스를 쓰잖아!

우진 : 우리는 안 쓰잖아. 우린 이름만 들어도 친환경적인 한살림 제품을 쓴다고. 그리고 생태가 더 더러워. 파리를 봐!

명익 : 기숙사 화장실은 눈치 보여. 딴 사람한테 소



리 들릴까 봐 아주 조금씩, 누가 없는 틈에 নিজ처럼 싼다니깐? 진짜 불편해.

우진 : 생태에서 똥 싸는 거나 기숙사에서 똥 싸는 거나 똑같이 눈치 보여. 똥 푸는 사람²들이 다 보는 건데 생태가 더 눈치 보이지.

명익 : 왕겨 안 덮냐? 바보야.

우진 : 왕겨가 없다고 생각해봐.

명익 : 그럴 일은 없어. 너는 기숙사 화장실이 막혔다고 생각해봐.

우진 : 기숙사 화장실 변기 막히는 게 흔하냐. 아니면 생태에 왕겨 없는게 흔하냐.

명익 : 남자 기숙사는 많이 막힌다면서?

우진 : 아니야 누가 그래. 한 학기에 한번 막힐까 말까 하는데. 생태 왕겨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명익 : 아는데 여자화장실은 왕겨 많아. 좀 나눠줄까?

2Round start

우진 : 그래도 똥 푸기 전에 싸면 왕겨를 덮는다 해도 똥이 보이잖아.

명익 : 보여도 내 똥인지 모르잖아! 기숙사에서 똥 싸다 나가면 진짜 민망해. 손 씻는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적막... 난 생태에서 다 해결해. 기숙사에서는 화장실 못 가. 눈치 보인다고!!!

1. 푸세식 화장실의 간디 버전.

2. 학생 혹은 선생님 2명을 랜덤으로 뽑아 매일 생태 화장실의 똥을 푼다.



우진 : 민망한 것보다 추운 게 더 싫어. 기숙사 화장실은 따뜻하잖아! 생태는 패딩 입고 있어도 추워.
명익 : 기숙사 변기가 훨씬 더 차가워. 엉덩이에 동상 걸릴 거 같아.
우진 : 기숙사는 화장실에 사람이 많으면 따뜻하잖아. 생태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추워. 난로를 틀 수도 없고, 또, 생태 청소는 끔찍해. 청소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명익 : 기숙사 화장실 청소도 만만치 않아.
우진 : 생태 똥 푸는 게 너무 싫어. 진짜 여름에 퍼도 싫고 겨울에 퍼도 싫어.
명익 : 그래도 기숙사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진 : 똥 푸기는 나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
명익 : 아니야. 그래도 생태가 훨씬 더 좋아. 난 생태에서 똥 싸거야.
우진 : 난 기숙사에서 똥 싸거야. 기숙사가 더 좋아.
 생태 화장실 VS 기숙사 화장실 토론 잘 보셨나요? 정말 치열합니다. 휴, 필자는 생태화장실도 좋고 기숙사 화장실도 좋습니다~ 둘 다 나름 매력 있으니 학교 놀러오시면 한번씩 꼭! 사용해보세요. 화장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모두들 깨끗하게 사 용합시다! 여러분~ 잘 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남·북·미 대표 3인방.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가 간디학교에 댔다? 그야말로 폭풍전야! 긴장감이 넘치는 각국 정상들의 화보와 3인방을 향한 간디인들의 시선, “왕이 될 상이 누구더냐?” 3인방의 관상까지 지금 보러 가시죠.

관상을 누가 보냐구? 자네 아직도 날 모르나?



태훈이는 작년 간디인들의 관상을 봐주던 제천간디학교의 관상가입니다. 신통방통하다고 소문난 이태훈 관상가가 이번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맞아 각 나라 대표들의 관상을 보았다고 해요.



트럼프, 간디인 시선

“미국은 동네에 말 안 듣는 힘 썬 형 느낌이 아닐까? 우리가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싸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
 “미국은 싸가지가 없어. 몸집으로 밀어붙이잖아. 재수 없어.”
 “약간 애 같다고 할까? 자기 밖에 모르고 그 얘기들 있잖아 칭찬해주면 좋아서 미쳐 날뛰는? 트럼프

는 그런 것 같아.”
 “트럼프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나라 이득만 생각해.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통실 통실한 것 같아. 딱 봤을 때 나빠 보여. 트럼프 미군가지 그 것 좀 나쁜 점들 있잖아.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땅덩이도 적은데 계속 만들고 그러잖아.”



| 관상 | 트럼프 고놈은 딱 정치가의 관상이야. 자기주장이 세다고 볼 수 있지. 하나하나 뜯어봐도 그려. 눈을 보면 살짝 들어가 있잖아. 내 장담하건데 자기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밀리는 거 못 참을 거여. 이봐 이봐, 눈과 눈 사이 간격이 좁은 게 딱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상이지. 콧대도 높은 거 보니까 사람 대할 때도 높은 걸 좋아한다고. 그니까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야. 쌍꺼풀이 있으면, 결단이 무지 빨라. 큰 고민 안하고 판

단을 내리는데 깊이 생각 안하고 냅다 질러보니까 뒤에 가서 “아 괜히 무리수 뒀다.” 그러는 거지. 근데 입술이 얇은 것이 결정내린 일은 확확 밀어붙이는 사람이야. 한 번 한다고 한 것은 끝을 본다는 거지. 북미 정상회담이니 종전협상이니 얘기를 해도 못 믿음직스럽기는 현디 일단 되던 안 되던 끝을 볼 거여. 솔직히는 내 바람이기도 해. 허허허. 입꼬리가 밑으로 많이 처져 있어. 웃는 상이 아녀. 요놈 하고 공격적인 대화를 하면 썩 기본 좋을 사람이 없어.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도 얘기할 때 잘 견뎌야 할 거여. 얼굴을 보니까 말년이 좋아. 화를 사지만 않으면 노후 좋게 보낼 거여. 그니까 화만 사지 말어 화만. 파이팅이여~

김정은, 간디인 시선

“북한하면 지금은 우리나라와 휴전국? 공산주의. 하고 김정은”
 “김정은, 핵, 탈북,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아.”
 “사실 북한에 대한 뉴스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는

데 아마 행복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김정은은 옛날에 비해 좀 친근하다. 김정은이 빨리 통일하면 좋겠네. 진짜 핵 기만히 좀 있으면 좋겠어.”



| 관상 | 흠, 아무래도 평소에 뭘 많이 먹고 사는 것 같아. 입술의 두께를 보면 본능적인 욕망이 많아. 먹는 거, 잠자는 거가 중요한 거지. 요놈, 눈썹이 열은 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드리는 사람이

여. 전통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맞춰가려는 스타일이네. 두 눈 사이의 간격을 봐도 사이에 눈이 하나 딱 들어갈

만한 게 외부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구. 근디 이런 사람이 은근히 까다로운 성격이라 맞춰주기가 쉽지가 없어. 미간이 꽤나 넓어. 경계심도 별로 없고 세심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지. 그니까 새로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코가 좀 낮았는데 아마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 거여. 걸으면 “우위어” 하더라도 내면은 소심하고 겁쟁이일 수 있다는 거지. 그치만 내가 보기엔 세 명 중에서 제일 썩여기가. 포스가 느껴져. 반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김정은, 간디인 시선

“굉장히 조심해줬으면 좋겠지.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일베’라던지 정치를 많이 까고 그러잖아. 생각이 어리거나 나이가 어리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sns 문화가 되게 발달한 상황에서 이상한 정보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문재인이 그런 것에 대한 대처나 평소에도 말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명박근혜가 통을 오질라게 싸버려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난 문재인이 절

대적으로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

“지금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얘기도 하고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도 성사는 시켰고 앞으로 두고 볼 문제지만 지금은 잘 하고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나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북한과의 관계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화목해진 것 같아.”



| 관상 | 문재인 이눔.. 지도자가 참 잘 어울려. 주변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해서 인맥이 넓어, 인맥 뿔도 많이 받는 군. 눈썹을 보면 끝이 위로 올라가 있어. 결단력이 있고,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뜻

이여. 또한 입을 보면 욕심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입이구, 크지도 작지도 입술은 명예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심도 썩 거의 완벽한 리더의 기질이

여! 또 이마는 흰칠하게 넓잖어, 운이 좋아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눈과 눈 사이 간격과 튀어나온 정도를 보면 웬만한 기회도 잘 잡고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놓치지 않는 편이란 걸 알 수 있지.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일도 어찌보면 예정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마지막 귀를 봐주지. 귀가 아래로 내려가 있잖어, 인상이 좋아 보이며 현신적인 사람이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어쨌든 문재인 이눔! 대통령 참 잘 할 것 같아. 지금 이대로만 쭉! 이어 가길 바라 보겠어.

| 관상을 봤을 때 세 사람의 조합은 괜찮은가요? |

세 명이 저마다 너무 달라. 서로 코드가 잘 잡혀서 토크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허허. 이거 이거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에이, 모 아니면 도여~





통일, 다들 어떻게 생각해?

“막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소리는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와 닿는 게 없어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와 닿는 게 없어. 통일 되면 이득이 될 거는 미래를 보면 많겠지. 물론 되면 좋은 거고”

“평화적 통일! 그냥 전쟁 안 일어나게 하고 미국한테 사바사바 하지 말고 하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통일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어.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해와서 정치적 성향도 많이 다를 것 같고 사실 나는 통일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야. 애매해.”

“책에서 보니까 통일 하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이 많지 않을까. 나쁜 점도 분명 있겠지만.”

스물 한 살의 완벽했던 여름

김채현(졸업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15년에 제천간디학교를 졸업한 김채현이라고 합니다. 벌써 졸업한지 3년이 되었어요. 이젠 학교에도 제가 아는 얼굴보다 모르는 얼굴이 더 많겠네요.

3년이 꽤나 긴 시간이었던 건지 졸업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했던 일을 하나만 고른다면 주저 없이 프랑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딱 작년 이맘 때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정말 막연하게 프랑스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쯤 고민을 하다가 당시 다니고 있던 지식 순환 협동조합에 휴학 신청서를 내고 바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어 막막하던 어느 날 서울에서 우연히 금산 간디학교 졸업생인 상희를 만나게 됩니다. 3년 만에 처음 만난 상희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 친구도 함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게 되었고, 처

음 3주를 같이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이틀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영복과 썬크림, 카메라 필름 12롤, 여름 신발만 겨우 사서 파리로 떠납니다. 심지어 디지털 카메라는 방에 곱게 두고 왔다는 것을 비행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늦은 저녁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저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참 아직도 거짓말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 많은 승객의 짐 중에 제 캐리어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루프트한자 직원에게 되지도 않는 영어로 도움을 청해 분실물 신고를 하고, 빈손으로 공항을 나서서 어렵게 부른 택시를 타고 먼 길을 돌아 드디어 숙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로 볼 뽀뽀 인사를 합니다!)

프랑스 땅에 첫 발을 내딛고 파리를 만끽할 새도



없이 지쳐버린 우리는 얼른 숙소로 들어가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첫날밤을 그렇게 보내고 아침 일찍 잠에서 깨 하루 일정을 정했습니다. 전 5주간의 여행을 매일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보냈습니다. 이는 것도 없었고 가보고 싶었던 곳은 유일하게 니스 해변 한 군데였기 때문에 과하게 유동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미국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서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 3시간동안 줄을 선 이후 “난 이제 관광지는 절대 안 갈 거야. 프랑스에 가도 에펠탑은 안 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보고 싶어도 에펠탑은 생각보다 훨씬 커서 파리의 웅만한 곳에서는 다 보입니다. 심지어 머물던 숙소 옥상에서도요.

그렇게 하루, 이를 오며가며 에펠탑을 보는데 이

상하게 분명 같은 위치에서 보는데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저녁을 먹고 에펠탑으로 갔습니다. 풀밭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서 에펠탑을 구경하는데 세상에나, 건축물을 보고 이렇게 감동할 수 있구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모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정각마다 반짝이는 조명을 켜 주는데, 그 조명을 세 번이나 보고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파리에는 정말 좋고 나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아밀리에’에 나오는 생마르탱 운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보다 더 예뻐서 해가 질 때 까지 앉아서 수다를 떨게 만들고, 한 시간 전 까지 우박이 내리던 파리의 날씨는 몽마르트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무지개를 띄웁니다. 오



랑주리 미술관에서 모네의 수련 연작을 보고 있으면 시간을 멈추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간다 해도 이것보다 더 잘 지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드디어 니스의 해변으로 떠납니다.

니스는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니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건조하고 아주 뜨거운 햇볕이 모든 것을 지글지글 녹입니다. 지중해는 이런 건가 봐요. 그래도 바닷가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집니다. 니스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수영복 위에 원피스를 입고 나가서 밥을 먹고,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검정치마의 노래를 듣고, 파란 의자에 앉아서 정환 쌤에게 선물 받은 책을 읽었습니다. 니스

에선 체리를 정말 많이 먹었고 갈매기를 매일 만났습니다. 아, 일산에 사는 한국인 짱뿔씨도 만났고 한밤중에 알몸으로 수영도 했습니다.

상희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차를 타고 조금 더 여행을 했습니다.

짱뿔씨와 함께 마르세유로 가서 폭 쉬고, 가장 예쁜 마을 아비뇽에서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더 지내면서 라벤더 밭에 가 매미를 만나고, 할아버지의 멋진 자동차 구경을 하고, 관광차를 다섯바퀴나 타고, 고호가 살던 아주 작은 마을 아를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프로방스 지역의 것들은 맑은 하늘과 타는 햇볕 때문인지 모든 것이 반짝입니다.

상희가 떠나고 혼자 남은 2주는 니스에서만 보냈습니다.



상회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
다. 매일 바닷가에 가서 검정치마와 다니엘 시저의 노래를
듣으며 책을 읽었고, 낮잠을 잡니다. 어떤 날은 집에
만 있기도 했습니다. 또 마티스 미술관에 가서 태어나서
처음 그의 그림을 봤고 그렇게 예쁜 색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니스 현대 미술관 옥상에 올라가면
너무 예뻐서 뛰어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
다. 구시가지에 있는 식당에서 니스에서 유일하게
맛있는 음식 라따뚜이를 먹고, 체리 맛 음료수
닥터페퍼에 푹 빠져서 열심히 마셨습니다. 슬슬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가끔 전화를 하기도
하고 곧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씩
고르기도 했습니다.

길기도 짧기도 한 5주는 돌아오는 길에 한 숨도
못자고 본 라라랜드,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 먹은
평양냉면과 함께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은 프랑스에 다녀왔
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등의 샌들 자국과 인화한 사진들을 보면서 그제
서야 즐거웠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평화로움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
지, 사실은 글로 적은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스물한 살을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보낼 수 있겠
을까요. 이렇게 완벽한 여름이 또 있을까요. ☘

화석 발견!?

김서준기자(2학년)

일명 덕산 졸업생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들! 벌써 누군지 아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간디인이 분명하군요! 이들은 바로, 졸업생
김혜림, 신지수, 이원범님 입니다! 졸업 후의 이야기부터 학생들을 위
한 현실조건까지 알차게 꾸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혜림: 04학번 김혜림이고, 누리마을 빵카페¹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범: 05학번 이원범이고, 누리마을 빵카페 메인
셰프를 맡고 있습니다.

지수: 06학번 신지수이고, 누리마을 빵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혜림: 졸업하자마자 5월부터 6년 정도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중국에 있는 아시

아평화학교에서 10개월을 지낸 후 지금은 누리마을
빵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에요.

원범: 저는 누리마을 빵카페 창단 멤버이고요. 군
대 다녀와서 새로운 음식 기술을 배우고, 다시 빵카
페로 돌아왔습니다.

지수: 졸업하자마자 아시아평화학교 1기로 가서 1
년을 지냈어요. 그 후에 요리를 배우고 여기저기 요
리를 하다가 다른 곳에 뜻이 생겨서 요리를 그만뒀
어요. 지금은 누리마을 빵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1. 2008년부터 우리 밀 빵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으로 제천간디청년들이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공간이다.

사회에서 '대안학교 졸업생'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으셨던 적은 없었나요?

지수: 대안학교에 대해 잘 몰라서 “소년원 갔다 왔냐” “귀족학교 아니냐”라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해 정도?

원범: 저는 많았어요.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요리를 시작했는데 저는 조리학과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심지어 빵 만들다가 왔으니까 그 안에서 근본 없는 놈이라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한 10개월 정도는 현장에서 굴렀던 것 같아요.

누리마을 빵카페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혜림: 대구에서 카페를 새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가게를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²도 여기 계시고, 제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오게 됐어요.

지수: 저도 비슷해요. 부모님³이 여기 계시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구한다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원범: 저는 좀 의미가 깊어요. 2011년도에 누리마을 빵카페 창단멤버로 시작해서 2017년도에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만들었던 공간이고, 마침 제가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뭐랄까...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제가 만들었던 공간에서 필요할 때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덕산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지수: 학교 다닐 때는 “아 이놈의 덕산”이러면서 너무 싫었는데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덕산이 너무 필요하고 그리워요. 근데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일거예요.

원범: 분명히 나뉘진 것 같아요.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애들이 있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애들도 있고, 무조건 와야겠다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혜림: 그런데 한 번은 나갔다 와야 돼요. 덕산에 계속 있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고, 최소 2~3년 정도는 바깥에 있어보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학교에 카페가 생겼는데 팁 좀 알려주세요!

혜림: ‘큰 의미를 가지고 운영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굴러가기는 해요. 하지만 카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잡혀있어야 학교랑 부딪혔을 때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카페지기 사람들이 뭉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확실하게 정해야 굴러나갈데 잡음이 덜 할 거예요.

졸업 후를 걱정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원범: 많이 깨져야 됩니다. 많이 깨져야 돼요. 제가 빵 아저씨⁴도 하고 카페에도 있다가 사회 나가서



도 빵을 만들어봤는데 저는 우리밀과 유기농 빵을 만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의미와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안교육이 얼마 없어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사회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수: ‘밖에 나가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인드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혜림: 지금 친구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밀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괴리감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학생으로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정말 달라요. 사회는 정말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즐겁게 보셨나요? 편하게 말씀해주시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 좋게 인터뷰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 3인방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덕산 누리마을 빵카페 많이 찾아주세요! 🍞

2. 04 김혜림씨의 부모님은 제천간디학교 교사이신 경수쌤과 후조쌤이다.
3. 06 신지수씨의 부모님 중 한 분은 제천간디학교 교사이신 희정쌤이다.
4. 간디학교에서 빵을 생산하는 동아리.



걷기 힘든 게 아니라

이한결 기자(5학년)

눈이 녹고, 꽃이 피면, 봄이란걸 느끼게 됩니다. 봄이란 걸 느끼면, 설레는 마음 가득히 거닐게 되지요. 설레는 마음으로 거닐게 되다가, 문득 마음이 무거워 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덕분에 살아남았고, 덕분에 행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이 다가오는 한국 근현대사의 봄날. 매년 열리는 4.19&4.16 정신계승 마라톤 행사를 통해 우리는 '기념'하고 있을까요? 봄이 되면 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마라톤 행사. 그 떠들썩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왜 하필 마라톤이야?

4월이 오면, 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간디학교의 행사중 하나. 4.19&4.16 정신계승 마라톤(이하 4.19 마라톤) 때문인데요. 4.19 마라톤은 4.19 혁명을 기념하여, 모두가 덕산을 마라톤 코스 삼아 뛰거나 산보하는 학생 주최 행사입니다. 4월 19일이 다가오는 즈음 열리며 꾸준하게 인기행사로 자리잡고 있지요. 기본적인 취지는 4.19 혁명 기념이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겠다는 다짐도 담아 4.19&4.16 마라톤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행사 전 모두 모여 강의를 듣는다던지, 마라톤 구간마다 관련 상식 퀴즈를 넣는 등 매년 다른 방식으로 4월의 근현대사를 기념하고 있죠. 그렇지만 현재 4.19 마라톤의 핵심은 바로 손잡고 뛰는 짝. 같이 뛰고 싶은 사람에게 신청을 해서 손을 잡고 뛰는 문화입니다. 때문에 마라톤 시즌이 다가오면 짝을 찾기 위해 기숙사는 시끄러운데요. 현재 인원과 성별을 제한하지 않지만, 짝을 신청한다는 건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게 현재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커플 마라톤'이라는 호칭이 따라 붙기도 하죠. 그런데 왜 하필 손을 잡고 마라톤을 뛰는 걸까요? 4.19 '마라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1960년 고려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승만 정부 독재탄압의 맞선 1960년 4.19 혁명, 하루 먼저인 4월 18일날 고려대 학생들의 봉기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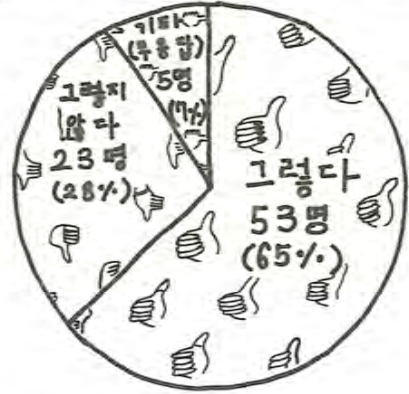
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고려대 학생들을 시발점으로 다음날인 19일에는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와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렸지요. 때문에 고려대에서는 매년 4.18 기념행사가 지금까지도 열리고 있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기념 마라톤입니다. 먼저 학교를 박차고 나와 거리로 설새없이 뛰었던 1960년대의 학생들을 재현하기 위해 생긴 프로그램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하죠. 고려대를 시작으로 혁명에 참여한 여러 학교에서 마라톤을 열었고, 2001년 이전 산청간디를 비롯한 많은 대안학교에서 4.19 마라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천간디가 산청간디와 분리되서도 매년 마라톤을 진행하였고, 다같이 연대하고 투쟁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남녀 간 걸음 속도 차이를 이유로, 남성과 여성이 손을 잡고 뛰도록 정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얘기를 거쳐 현재는 성별과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마라톤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 마라톤 뛰기 싫어요!

이렇게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4.19 마라톤 행사,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작년 봄, 4.19 마라톤을 거부하는 학생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4.19 마라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주최 측인 행사부는 짝을 구해야 한다는 규칙을 없애면서 행사를 진행했죠. 올해 열리는 4.19 마라톤 역시

1. 학생회 부서 중 하나. 학교의 행사를 기획하며 준비하는 부서이다.

올해 4.19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별다른 규칙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불만은 사그라졌을까요? 설문을 통해 4.19 마라톤의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여쭙어 보았습니다.

81명의 학생에게 물어본 결과, 4.19 마라톤을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학생이 23 명으로 응답자 중 28%의 학생이 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습니다. 2 번 째 질문인 “마라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4.19 혁명을 기념한다면” 질문에는 53명의 학생이 좋다고 응답했죠.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학생이 53명이지만, 기존의 4.19 기념행사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학생도 53명입니다. 이는 고착화된 기존 마라톤 행사에 대한 불만, 또는 행사 취지에 크게 공감하지 못

마라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4.19 민주항쟁을 기념한다면?



한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불만은 대체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3. 나는 왜 뛰고 있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취지가 안 맞아. 말로는 4.19를 기념한다고 하지만, 아무나 잡고 물어보면 “커플 만드는 행사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본 목적과 너무 달라. 차라리 그럴꺼면 봄맞이 마라톤을 만들어라.

- 작년 4.19 마라톤 참가를 거부한 학생 C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려오는 행사의 ‘의미실종’은 행사부의 큰 숙제입니다. ‘4.19 혁명& 세월호 참사 기억’이 아닌 커플 마라톤 느낌이 든다는 학생을 비롯해, 왜 마라톤을 뛰고 있는지 모른다는 학생들도 대다수이지요. “마라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4.19 혁명을 기념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답변에는 “지금 4.19 마라톤은 전혀 기념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성과 손잡고 뛰는 것에만 중점이 찍혀있다.” 등 행사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마라톤 관문에 등장하는 퀴즈의 소재로만 전락한 4.19 혁명과 세월호는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죠. 행사부가 매년 다른 방식으로 4.19와 4.16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왔지만, 학생들은 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퀴즈나 피피티를 통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행사의 의미에 대한 공감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녹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최측인 행사부의 변신이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는 4.19 혁명과 세월호 참사를 기릴 수 없습니다. 마라톤 관문의 게임과 퀴즈도 이런 이해 속에서 비롯된다면, 4월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태어날 수 있겠죠. 왜 기억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적합한지 모두에게 과감히 물어야 합니다. 행사의 취지 확인과 개선 여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매년 행사부만 짊어지는 방식도 이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일장을 통해 4.19 혁명을 기념하고 마라톤에서는 전교생을 추첨하여 짝을 지어주는 산돌학교의 4.19 마

라톤, 마라톤 행사에서 1960년대를 재현한 운동회로 행사를 개편한 산청간디 등 다양한 학교에서도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들만의 4.19 마라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마라톤이 아닌 새로운 행사, 또는 새로운 방식의 마라톤이 탄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4. 너는 뭘 사람 없냐?

“짜은 구했어?”, “너는 뭘 사람 없냐?”. 4.19 마라톤 시즌이 되면 항상 주변에서 들려오던 말들입니다. 앞서 설명한 4.19 마라톤의 의미실종, 그 빈자리에는 ‘커플 마라톤’이 자리잡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설레는 이벤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소외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행사부의 ‘커플’ 위주 프로그램과 멘트가 이를 상징하며, 남녀에게 ‘둘이 사귀상’이란 상을 수여 하는 등 이성애 커플이 고정된 성역할로 강조되는 문화 역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런 ‘커플 맺어주기’ 위주에 행사방침이 4.19 혁명 기념이라는 의미를 멀어지게 하는게 아닐까 싶죠. 현재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규칙을 개편해 문제를 없애려 하지만, 오랜 문화를 바꾸기는 힘듭니다. 여전히 이성과 뛰지 않거나 혼자 뛰는 친구를 ‘루저’라고 놀리고, ‘이성 짝짓기’란 생각으로 행사를 맞이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이니까요. 준비 주체인 행사부가 이러한 문화를 탈피하려 한다면, 학생들도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4.19 마라톤을 대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않을까요? ‘커플 마라톤’이란 인식에서 ‘4.19&4.16 기억 마라톤’이라는 인식으로 전복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거라 믿습니다. 항상 짝을 찾느라 소진하는 에너지를 4월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사용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행사가 나오겠지요. 본인이 4.19 마라톤 행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뛰고 싶은 친구와 뛰지도 말고 어떻게 기념할지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납니다. 좋아하는 친구와 손 잡고 걸을 수 있는 행복을 뺏을 필요는 없지요. 단지 그 행복함과 동시에 4.19 혁명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노력도 병행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짝을 구할까' 라는 고민이 먼저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행사를 즐길건지 고민하는 자세가 먼저이지 않을까요?

5. 걷기 힘든 게 아니라면.

작년에 시작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행사부의 프로그램 기획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성과 꼭 뛰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고요. 앞서 말했던 '커플 마라톤'에서 '4.19 혁명&

세월호 참사 기억 마라톤'으로 인식이 전복되는 순간을 갖 시작한 셈이죠. 이러한 흐름을 잊지 말고 쪽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팽개쳐두지 말고 끌어안고 말입니다. 물론 '커플 마라톤'이란 인식 탈피와 본래 취지를 찾기 위한 대안은 아직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민'을 좀 더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커플 마라톤'은 우리 머릿속에서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거쳐 매 년마다 기발한 상상력들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4.19 마라톤은 1960년대의 국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요?

정권이 교체되기 전 이었던 필자의 중학생 시절.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권 퇴진을 외치며, 도로를 뛰었던 순간의 벽참이 생생이 기억 납니다. 어찌면 1960년대 국민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어렵듯이 느꼈는지도 모르죠. 4.19 마라톤이 그런 감정들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계속 기억할 수 있는 행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든지, 잡지 않는지는 상관 않고 말이죠. 걷기 힘든 게 아니라면요. ♡

우리는 간디 ↗ 걸~이예요

이성민기자 (3학년)

띠리링 네 여보세요. 뭐라고요? 제천간디학교에 걸그룹이 났다고요?! 데뷔 무대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며 간디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그녀들! 상큼 발랄함의 끝판왕! 간디걸즈를 저희 일상다반사가 독점 취재했는데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케미를 보여준 그녀들의 인터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뽕★





다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간디

같이: 걸이에요~

정민: 첫 인터뷰라 너무 떨리지만 오늘도 아자아자

같이: 파이팅~! 하하 호호

Q.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연지: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 연지라고 해요.

정민: 저는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하정민이에요.

명주: 저는 퍼포먼스 담당을 맡고 있는 서명주예요.

봄: 어 저는 이 팀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래퍼 이봄이에요.

다은: 이 팀의 리더이자 메인댄서 후훗 다은이라고 해요~

Q. 결성계기는 무엇인가요?

다은: 사실 저희는 항상 데뷔를 꿈꿔왔었어요. 그러던 중에 같은 학년인 친구들끼리 작년에 월말평가를 통해서 춤 연습을 했었죠. 마침 올해 신입생활영¹라는 기회가 와서 이 기회에 데뷔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 결성되었어요.

Q. 3년 간의 혹독한 연습생활 끝에 데뷔 12일차라는 핫한 신인 걸그룹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연지: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니까 금방 식을까 겁이 나오~

다은: 그러니까요. 아직 10일 조금 넘었는데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줄을 서서...

봄: 저희 간디걸즈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벌써 게시물에 올라왔더라고요.

정민: 좋아요 100만개는 가볍게 넘고

봄: 아니죠~ 저희 조회 수 2000개 정도 돼요.

다은: 좋아요 3개야ㅋㅋㅋ

연지: 현실ㅋㅋㅋㅋ

Q. 몸매 관리법이나 카메라 잘 받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같이: 왕하하하하하

연지: 저희가 걸그룹 최초로 조기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다은: 저희는 일단 마른 것 보다는 조금 살집 있고 두툼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같이: ㅋㅋㅋ 두툼ㅋㅋㅋㅋㅋㅋ

다은: 많이 먹고 체력을 기르자.

봄: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연지: 우리 정범² 나가면 딱이겠다.

정민: 아육대³ 씨름도 나갈 건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연지: 씨름? 그냥 내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은: 아, 그리고 명주씨 셀카 잘 찍으시잖아요~

명주: 그냥 뭐 찍으면 맨날 인생사진 나와서...

다은: 제가 명주씨 셀카 찍는걸 많이 봤는데, 명주씨는 햇빛이 딱 정각 12시에 뜬 때 햇빛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눈이 부셔도 감

1. 막 입학한 1학년들을 환영하는 제천간디학교의 행사.

2. <정글의 법칙> SBS 금요일 10시 방영. 방송인들이 정글에 가서 살아가는 프로그램.

3. <아이돌 육상대회> MBC 설, 추석 특집방영. 아이돌 육상대회 프로그램.



지 않고 곳곳이 뜨면서.

명주: 단련했어요. 매일 아침.

Q. 다음 컴백 무대 콘셉트는 무엇인가요?

연지: 스킨피... 까지만 할게요.

정민: 칼군무 칼군무.

다은: 요즘 완전 핫한 걸그룹이죠. 칼군무와 맨발의 안무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5인조. 가을축제* 때 만나요~!

Q. 아이돌 인터뷰라면 빼 놓을 수 없는 케미테스트 이 구동성!

명주: 이런 거 재밌지~

다은: 내 취향에 맞춰

기자: 간디러버~ 곤싸~ 하나... 둘... 셋!

같이: 간디러버!!! 와우우우후후후우~후오양 (박수)

기자: 이거 곤싸*도 보실 텐데...

같이: 사장님은 마음속에 1순위죠. 영원한 1순위.

4. 매년 10월 초에 하는 제천간디대학교 축제. 5학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축제이다.
5. 간디엔터테인먼트 이병곤(제천간디대학교장) 사장님의 별명.



Q. 신인인 간디걸즈는 열애설이나 파파라치, 어떻게 관리하세요...?

다은: 저희 팀 내 연애는 금지예요.

정민 외 나머지: 씬금지 연애금지.

명주: 곤싸께서 당당신부... 신신당부하셔서ㅋㅋㅋ
ㅋㅋㅋ

다은: 일단 연애를 하게 되면 연예계 활동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심해 파파라치 안 찍히게.

Q. 간디엔터테인먼트 사장님 곤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주: 아 곤싸요...? 일단 곤싸가 저희를 이렇게 다

모았거든요. 다섯 명을. 곤싸 덕분에 열심히 여기까지 온 것 같고, 하...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진짜.

정민: 없는 형편에...

다은: 사장님께 랩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봄씨!!

같이: 호오오오오우

봄: 미쳤나 봐ㅋㅋㅋㅋㅋ

정민: 저희가 비트박스 갈게요

같이: 북치기박치기뿌뚜뿌뚜 콕치기 북치기박치기

다은: 곤싸에게 빠끼빠끼빠끼 뿌~

봄: 빈첸⁶ 팬이라고 적어주세요. 아 곤싸 곤싸 이병 곤 싸장님~ 오우 너무 감사해요우~ㅋㅋㅋ

다은: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명 이병재. Mnet에서 방영한 <고등래퍼2> 출연자.

같이: 휘오오우 (박수)

봄: 뽀뽀~

Q. 마지막으로 간디걸즈의 영원한 팬덤, 간디러버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명주: 간디러버 회장이 지금 신주현씨와 이다솜씨, 저희는 일일이 팬 이름도 외워요.

정민: 저희 환호하느라 목까지 쉬었다는데...

연지: 어머 리더 눈물 고이는 거 봐...

같이: 이걸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자

연지: 간디러버 정말 사랑합니다~

정민: 초창기 때부터 저희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구 진짜 간디러버 한명한명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요. 우리 다음 공연에서 만나요~

명주: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올라서 좀 당황스럽지만 간디러버 모두에게 감사해요~

봄: 저희 음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열심히 봐주시고 라이브도 많이 올려줄게요~

다은: 우선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노래도 내고 많은 커버 댄스도 준비한다면 콘서트나 팬싸인회, 팬 미팅으로 만나볼 계획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기대해주세요.

정민: 여러 가지 많은 활동으로 간디러버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같이: 와아아 간디러버 사랑해요!

인터뷰가 끝나자 기자마저 간디걸즈의 늪에 빠져 간디러버가 되었다는 후문이...! 앞으로의 활동도 승승장구 하시길!! 다음 컴백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하고 기다릴게요. 우웩빛갈 간디걸즈! 사랑해요 간디걸즈♥

간디소 TV

19

<간디소 TV 봄 편 중>

2018 일상다반사에서 준비한 야심찬 프로젝트!
 지면으로 뒤편 간디소 코너를 영상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간디소 tv 봄 편에서는 입학식, 경수쌤 환갑, 비폭력 서약식 등
 간디인들의 짙막한 소식들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아래 설명된 두 사이트를 통해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 YouTube 제천간디학교 🔍

f Facebook 제천간디학교 🔍



꿈을 통해 생각을 심을 수 있다면

이태훈(4학년)

장르-액션, 모험, SF, 스릴러

상영시간-147분

감독-크리스토퍼 놀란

주연-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셉 고든 레빗

평점-★★★★★(4.9점)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받았지만,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고 보는 영화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쓸 영화를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제가 봤던 여러 영화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네 번 이상 봐도 질리지 않았으며, 재미있었던 <인셉션>을 선택했습니다.

| 줄거리 |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가 생각을 훔칠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는 미래 사회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수배자가 된 '돔 코브'는 엄청난 기업의 거물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타인에게 생각을 심는 일을 성공하면 모든 것을 되찾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제안이지요. 코브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도 같았기에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타인에게서 생각을 훔쳐오는 일로 계획만 잘 짜면 쉽게 성공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심는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씨앗(생각)이라도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뒷감당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 코브는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팀을 꾸립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꿈에서 죽는 것, 두 번째는 '킵'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을 때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

면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는 도중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뒤로 넘어가거나 떨어지는 걸 느끼고 본능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킵이예요. 세 번째는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졸리지도 않은데 잠이 들 순 없으니 수면제를 이용해서 꿈을 끕니다. 5분정도 잠을 자게 하는 수면제를 먹는다고 치면 그 약효가 떨어질 때쯤 꿈에서 깨어나죠.

| 선택이유 | 제가 인셉션을 선택한 진짜 이유와 느낀 점을 설명하지요. 인셉션은 보통 영화들과 다르게 저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잠에 들 때부터 꿈을 꿀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내 꿈 속 세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우리 많은 일들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꿈 꿔왔지만 현실이라는 제약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일들 말이죠. 그런데 인셉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꿈 속 세계를 조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타인과 꿈을 공유해서 생각도 훔칠 수 있고, 또 어떤 생각을 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놀란 감독님의 영화라 그런지 다 보고 나서도 잊지 못했고, 영화를 처음 본 그 날은 내가 꿈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헛갈릴 만큼 정말 재미있습니다. 놀란 감독님께서 숨겨둔 트릭이나 열린 결말을 추리 해 봐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이 영화는 사랑입니다

오우진(4학년)

장르-로맨스/멜로/드라마

상영시간-107분

감독-미셸 공드리

주연배우-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평점-★★★★★(만점)

이터널 선사인은 1년에 한 번은 꼭 보게 되는 마약 같은 영화다. 장면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거나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냥 소파에 누워서, 혹은 화장실에서 힘 들 때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다.

| 줄거리 | 이 영화의 남자주인공 조엘은 어둡고 소심한 성격이다. 그 반면 여자주인공인 클레멘타인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이 둘도 서로의 반대된 성향에 이끌려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매력은 이질감이 되어버리고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처음에 설레었던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 지면서 같이 있어도 멀어지는 느낌이 되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하다 실패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둘은 결국 이별하게 된다. 이 영화가 흔한 멜로 영화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이 다음부터이다. 영화 속에는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가 있다. 클레멘타인은 이별 후의 고통이 너무 싫어서 조엘에 대한 기억을 지운다. 그 사실을 모르고 사과를 하러갔던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자신에 대한 기억을 다 지우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화가 난 조엘은 클레멘타인처럼 '선택적 기억 삭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고, 이 서비스가 시작 되자 조엘은 자신의 기억 속에 들어가 클레멘타인과의 기억을 하나하나 돌아본다. 마치 컴퓨터에 누구나 하나씩 있는 히든폴더를 지우는 것처럼 착잡한 심정으로 지워지는 기억들을 바라보던 조엘은 지우기 싫은 기억

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결국 조엘은 자신의 기억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기억 속 클레멘타인을 데리고 엉뚱한 기억 속으로 도망간다.

| 선택이유 |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본 이유는 내가 봐왔던 기존의 멜로/로맨스 영화들에 비해 신선했기 때문이다. 기억을 다룬 영화들은 대부분 스릴러 영화이거나 무겁고 진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멜로/로맨스 장르에 기억이라는 주제를 섞으면서 무겁지도 진지하지도 않고 가벼운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좋았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감독이 천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 비싼 CG를 쓰지 않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표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배우들의 연기도 전부 좋았다. 그냥 정말 잘 만든 영화이다. 할 게 없는 사람들에게 킬링타임 용으로 이 영화를 추천한다. 굿



권윤서(3학년) 글기자

이번 호도 마감을 못지켰네요ㅠㅠㅠ유경언니 사랑해요 하하 다음호부터는 마감을 잘 지키겠습니다! 기사 인터뷰 해준 명익이와 우진이 고맙고 다음호도 힘냅시다



김담(4학년) 사진기자

카메라 충전기가 없어졌다 ★



김서준(2학년) 글기자

이번 호는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요. 매번 여유를 두고 마감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매번 실패하네요. 특히 이번 호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마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호에는 진짜 마감을 여유롭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도와준 성민언니 정말 고마워요♥



윤수민(4학년) 글기자

이번호는 한 일이 없지만 다음호부터 글기자로 찾아뵙게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아



이성민(3학년) 글기자

저는 이번 호 데드라인 5일 전 부터 마감을 했죠. 처음 마감 지킨 것 같아요ㅋㅋ 화보찍느라 진짜 진짜 수고 많이 한 문형언니와 간디걸즈 다은언니, 연지언니, 명주언니, 봄언니, 정민언니 고마워요 :-D 모두모두 산뜻한 봄 보내세요 ㄱ•••?



이재형(5학년) 글기자

나 너무 힘들었어요ㅠㅠ 으아아앙

“야! 특집 부리지마!!!”

정말 모두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부터 데드라인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싸리 for 편집장